



석우 스님의
조주록 선해

근원의 냄새를 맡는 방법

학승이 물었다. "나타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불보살이다."

問 出來底是什麼人 師云 佛菩薩

경전에, 부처님과 보살은 윤회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타어난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나타난 사람'이라고 한다.

중생의 성품은 본래부터 부처이다. 이것을 불성이라고 한다. 중생은 태어나 자기가 부처인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각종 죄악을 지으면서 업식을 쌓는다. 이 업식은 허공중에 생긴 공화(空花)와 같다. 중생은 공화를 사실로 생각하고 집착한다. 이로 인해 윤회하게 되므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수많은 생을 전변윤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불보살이나 선사(禪師)는 스스로 우주의 주인이요, 스스로 만물의 근원임을 깨달아 아는 자이다. 즉 자기의 본질을 바로 아는 자이다. 그러므로 각자(覺者)들은 누가 뭐라 해도 자기의 길을 간다. 주체적 삶인 붓다의 길을 간다. 그 무엇에게도 이끌리지 않는 주체적 삶, 이것이 수행(修行)되면 공화(空花)에 속지 않고 다음생도 자기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불보살은 윤회하는 자가 아니고 출현하는 자이다.

학승이 물었다.

"영묘한 풀이 아직 생겨나지도 않았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갈라진다."

학승이 말했다.

"냄새를 맡지 않을 때는 어떠합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잇기는 한데 마치 죽은 사람과 같다."

학승이 물었다.

"제가 화합하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조주 스님이 말했다.

"사람이 와도 말을 걸지 마라."

問 靈草未生時如何 師云 嗅著即腦裂 云不嗅時如何 師云 如同立死漢 云還許學人相合否 師云 人來莫向伊道

영묘한 풀은 영묘한 자리에서 난 풀이다. 영묘한 자리는 근원을 말한다. 근원에서 난 풀은 근원이 표현된 것이다. 예컨대 불보살 자체가 근원을 표현한 풀이다. 불보살의 행은 근원의 풀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 의 근원은 만물로도 나타난다. 세가 나르고 꽃이 피는 것 모두 근원의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선사가 표현하는 도의 세계도 모두 근원의 표현이다.

깨달음은 영묘한 자리에서 나온 한 조각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 진리도 영묘한 자리에서 나온 풀이다. 수

행자가 한 순간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데, 사람이 깨달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영묘한 풀이 솟아난 것이다. 깨달음의 풀이다.

조주 선사는 영묘한 풀의 냄새를 맡는 순간 두개골이 갈라진다고 말한다. 즉, 근원의 냄새를 맡는 자는 깨달음은 나중의 문제이고 곧 생명이 끊어져 죽어버린다는 것이다. 정말 그렇다. 그 냄새를 맡는 자는 몸과 마음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다. 풀의 냄새를 맡고 죽지 않았다면 그것은 맡은 것이 아니다.

깨달음을 얻은 자도 풀의 냄새는 맡지 못했다. 다만 풀 냄새를 맡고 죽은 자는 똑똑히 보았다. 그것을 보고 냄새의 실체를 깨달았다. 이것이 깨달음이다. 죽지는 않았으나 가히 죽은 것과 같다. 죽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기 어렵다. 깨달은 자는 깨달음의 순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다.

'냄새를 맡지 않았을 때'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때이다. 이것은 더욱 정상이 아니다. 60~70년 육신을 운전하고 살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 때문에 육신의 운전수로 살아가는지 모르고 산다면 산승장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렇다면, 냄새는 맡되 죽지 않는 방법이 있는가? 조주 선사는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보아도 자기가 맡은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다. 말해버리면 바로 그 순간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풀의 냄새를 맡고 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유일하게 냄새 맡고 죽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무불선원 선원장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㉔



부처님께서 의지처로 지명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맛지마 니카야 108)

창업(創業)보다 수성(守城)이 어렵다. 수성의 책임을 부여받은 2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 창업자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이다. 왜 그럴까?

간절함에서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왜 이토록 고생하면서도 이 길이 아니면, 다시 다른 길이 없음을 자각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수성의 대인(大任)을 부여받은 2세의 입장에서는, 그가 걸어야 할 길이 그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닌 것이다. 밖에서 주어진 것일 뿐이다.

그렇기에 "은전히 깨달으신 부처님의 모든 자질을 갖고 있는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한, 아난 존자의 고백에서 나는 한없는 솔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사람스런 아난이여!

얼마나 격정스러웠을까? 부처님께서 ---. 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 그 많은 제자들은 누가 또 건사할 것인가? 적지 않게 일어나던 분쟁은 또 누가 판결하여, 교단의 평화를 유지해 갈 것인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내심으로는 부처님의 속마음을 헤아린다고 하고 있었던 이가 바로 비서실장 아난이었다.

그런 오해가 낳은 질문이, 부처님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누군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수성의 대임을 떠안을 제자를 누구 하나 미리 임명해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였다. 오해하지 말자. 그 당시 직접 부처님의 방침을 전해들은 아난 스스로 이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열반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의 일이었다.

"부처님께서 의지처로 지명한 제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알아 역, 한 권으로 읽는 빠알리 경전, 민족사, 175쪽)

그분 스스로의 단독결정으로 그런 의지처 역할을 할 후계자를 임명하지 않으셨다면, 혹시 부처님께서 민주적으로 승단의 중의(衆議)에 따라서 선임하라고 했던 것일까? 그런데,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승가에서 동의하고 많은 장로 비구들에 의하여 지명된 비구는 없습니다"라는, 아난의 거듭된 증언(證言)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도무지 부처님께서 승단이나 교단의 장래에 대해서는, 그 인적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듯 싶다. 오직 관심을 가진 것은 가르침, 법(法, dhamma)의 미래였을 뿐이다. 당신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제자들의 수행, 또 먼 미래에 태어날 중생들의 삶에 대해서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더욱더 당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거두어줄 후계자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부처님께서 아시고 계셨다. 창업보다 수성이 어려움. 그래서 그러한 대임을 맡길 어느 한 사람의 후계자를 간택하여, 수성의 대임을 맡기시지 않으셨



그림 · 박구원

다.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하셨을지도 모른다. 그 대신에 그 일, 즉 제자들의 수행, 또한 먼 미래에 올 중생들의 삶이나 깨달음에 대해서조차 그 책임을 그들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셨다. 다만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가르침과 계율이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자주 모여서 가르침과 계율을 토론하고, 스스로의 삶이나 행동을 가르침과 계율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보지만 한다면 문제가 없으리라 부처님께서 믿으셨을 것이다. 가르침과 계율에 의지할 뿐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이리라.

또 하나, 의지처로 지명한 후계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이 말씀에서는 교단운영에 관한 전언(傳言) 역시 담겨있는 것으로 읽힌다. 교단 전체, 즉 사방승가(四方僧伽)를 하나로 통어(統御)하는 권력을 내세우기 보다는 소규모라 하더라도 현전승가(現前僧伽) 단위로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에 의지해 수행하라는 뜻으로 말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19>

삼학-②정학(定學)

색계의 정신통일 사선정은 정의 기본

계(戒)를 지키게 되면 심신을 조절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마음의 통일 상태인 정(定)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조신(調身)·조식(調息)·조심(調心), 즉 신체와 호흡과 정신을 조절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넓은 의미에서 이러한 심신의 조절이 바로 계에 해당한다.

정의 의미는 '팔정도 정정(正定)'에서도 언급했듯이 산스크리트어 삼아디(samādhi)를 번역한 말로, 정신통일의 뜻을 갖고 있으며 정(定) 선정(禪定) 적정(寂定) 삼매(三昧) 삼마지(三摩地) 등으로 한역됐다.

남방 불리어 경전과 한역(아함경(阿含經)) 등의 초기경전에서 정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삼학(三學)의 정학(定學)에서도, 팔정도의 정정(正定)에서도, 공통적으로 사선정(四禪定)을 언급하고 있다. 사선정은 초기불교 이래로 정을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언급되는 전형적인 설명법이다. 이는 사선정이 불교에서 말하는 정의 가장 기본이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선정 또한 '팔정도 정정' 편에서 언급했듯이 정신통일의 네 가지 단계를 가리킨다. 사선정을 다시 간략히 언급하면, 선정에는 들었으나 아직 마음이 거칠고 미세한 작용이

남아있어, 보고 듣거나 추위와 더위 등의 인식이 일어나는 초선(初禪)단계, 마음에 거칠고[尋] 미세한 작용[伺]이 사라지고, 신근(信根)이 뿌리내려 정신통일이 한 단계 상승한 상태인 제2선(第二禪)단계, 고뇌가 사라진 상태에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경지인 제3선(第三禪) 단계, 마음이 안락하다는 인식조차 멀해 마음은 미동치 않는 부동정(不動定)의 상태가 되는 제4선(第四禪)단계를 말한다.

하지만 사선정은 정의 기본이지 정학의 모든 것은 아니다. 불교는 중생이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영역을 세 곳으로 나눈 삼계(三界)라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삼계란 욕계(欲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를 가리키는데 욕계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며 음욕과 탐욕을 지닌 중생들이 사는 곳을 말하고, 색계는 욕계 위에 있는 세계로 음욕과 탐욕에서 벗어난 존재들이 사는 곳을 말한다. 무색계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세계이며 물질적 세계로 고도의 정신적 세계를 가리킨다. 이 삼계에도 각각의 정의 존재하며, 이를 욕계정(欲界定)·색계정(色界定)·무색계정(無色界定)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이 일상에서의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신통일이 아니며, 이를 '욕계의 범위에서 행하는 정신집중'이라는 의미로 욕계정이라는

말을 쓴다. 사선정에 해당하는 진정한 정신통일은 욕계에서 벗어나 색계에 진입한 후에 가능한 정신통일법이다.

즉 색계에서의 정신통일이 사선정의 시작이며 이를 색계정이라고 부른다. 색계정 상태에서 더 나아가 무념무상에 가까운 상태가 되면, 이것을 무색계정이라고 한다. 즉 욕계에서의 정신통일이란 번뇌 속에 있는 중생의 깨달음이 아닌 자신의 욕망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차원의 정신집중에 불과하다. 계를 행함으로써 이 욕계를 빠져나왔을 때 비로소 색계에 들어서 사선정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색계의 정의 사선정이듯이, 무색계의 정에도 단계별로 구분되었다. 무색계정은 공무변처(空無邊處)·식무변처(識無邊處)·무소유처(無所有處)·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로 나뉜다. 공무변처는 물질적인 존재가 없는 '공간의 무한성'을 대상으로 하는 삼매로 일체의 물질적 형태를 떠나, 무변의 공(空)을 보는 정신통일 상태이다. 식무변처는 '인식작용의 무한성'을 보는 삼매의 경지이다. 무소유처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체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비상비비상처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想)조차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닌 경지를 말한다. 동국대 불교학박사 · 前 本지기자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익식 지원**
신부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